

철학의 현실화, 현실의 철학화 꿈꾸는 철인

《서양철학사의 이해》 펴낸 광운대 박영식 총장

광운대 박영식 총장이 《서양철학사의 이해》를 펴냈다.

40여년에 걸친 학문적 여정을 총결산한 이 책은 고대 탈레스부터 현대 분석철학에 이르기까지 2600여년의 서양 철학사를 정리했다. 박총장은 우리가 서양 철학사를 배우는 것은 결국 합리적으로 사유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광운대 박영식 총장(66)이 《서양 철학사의 이해》(철학과현실사)를 펴냈다. 《플라톤 철학의 이해》(정음사), 《비트겐슈타인 연구》(현암사)에 이은 세번째 저작저서다. 이 책은 주(註) 없는 교양서라는 점에서 이전의 학술서와는 모양새가 다르다. 하지만 40여년에 걸친 학문적 연찬의 산물이라고 무게가 결코 가볍지만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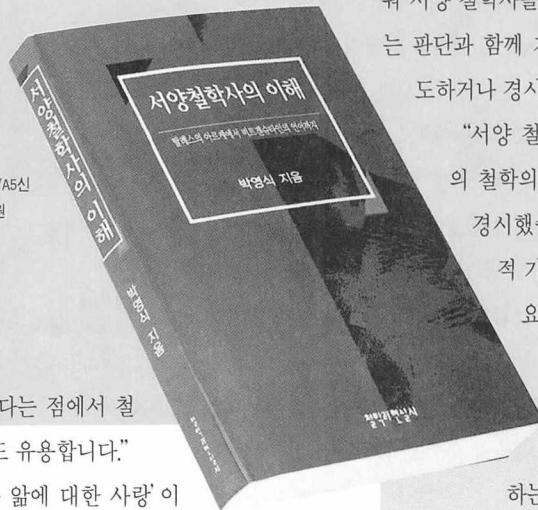
“흔히 철학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철학적 용어나 문장, 사상 자체의 난해성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 철학자들이 강단철학에만 치중해 대중과 호흡하지 못했다는 점도 그 이유로 꼽을 수 있겠지요. 철학과 대중 사이에 다리를 놓자는 뜻에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40여년의 학문적 여정 총결산

이 책에는 자신의 학문적 여정을 총결산한다는 뜻도 담겨 있다. 1960년부터 97년까지 연세대에서 철학사를 근간으로 강의해온 ‘철학개론’을 가다듬은 것이다. 지난 95년부터 약 2년 동안 격주간지 《메트로폴리탄》에 연재한 <박영식 교수의 철학 이야기>가 이 책의 모태가 됐다.

“철학사는 철학을 이해하는 지름길입니다.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철학이 출발하고 어떻게 난제를 해결했으며 후대 사상가들이 어떻게 비판적으로 계승했는지 거시적 흐름 속에서 살펴볼 수 있지요. 자신이 다루는 사상의 위치와 지향점

철학과현실사/A5신
406면 / 13,000원



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철학도에게도 유용합니다.”

‘철학은 삶에 대한 사랑’이라는 정의에서 시작하는 이 책은, 세계의 근원적 질료(아르케)가 무엇인지 물었던 탈레스부터 의미의 명료화를 추구한 현대 분석철학에 이르기까지 2600여년의 서양 철학사를 사상 중심으로 엮었다. 하지만 난해한 개념으로 점철된 철학자의 사상을 쉽게 서술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

“어떤 철학자의 사상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그의 철학을 완전히 소화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철학자의 글을 문자 그대로 옮겨놓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 되지요. 그래서 원칙을 하나 세웠습니다. ‘철학자의 사상에는 구애받되 그의 용어와 문장에는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집필기간이 5년이나 걸린 것도 이 때문이다. ‘후설의 현상학’을 서술하는 데만 꼬박 1년을 보냈다. 95년 교육부장관으로 재직할 때 바쁜 일정 때문에 이 작업을 중단할 뻔했다. 하지만 공식일과를 시작하기 전 두시간씩 짬을 내 집필작업을 계속 이어나갔다.

뤼토스에서 로고스로

철학사를 정리하면서 박총장은 자신의 철학적 관점을 앞세우지 않고 철학자의 사상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데 주력했다. 자신의 관점을 앞세워 서양 철학사를 한줄에 꿰어나갈 능력이 없다는 판단과 함께 자신의 입장과 다른 철학을 매도하거나 경시할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서양 철학사를 집필한 러셀은 경험주의 철학의 관점에서 칸트나 헤겔 철학을 경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철학적 가치는 결코 평가절하될 수 없지요. 철학은 관점을 세우는 일이므로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입장을 폄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박총장에 따르면, 철학은 신화적 사고(뤼토스)에서 과학적 사고(로고스)로 넘어오면서 출발한다. 신화적 사고란 이 세계의 자연현상이나 역사적 사건을 초월적 존재로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스의 자연철학자들에 이르러 신화적 사고는 과학적 사고로 전환한다. 인간이 과학적·이성적으로 세계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철학은 고대에는 ‘만학의 제왕’이었습니다. 철학이 모든 학문을 그 속에 포괄하고 있었고 나아가 철학을 기초로 다른 학문들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세에 이르러 철학은 신학을 체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떨어집니다. 인간이 종교에서 해방되고 이성을 회복함에 따라 근대가 열립니다.”

철학의 과학화 추구한 분석철학

근대에 이르러 철학은 천문학·물리학·수학 등의 자연과학이 분가하면서 정신의 문제를 다루는 정신과학으로 축소된다. 20세기에 들어서면



광운대 박영식 총장

서 철학이 정신과학의 고유영역이라는 주장도 흔들리기 시작한다. 정신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실험심리학의 도전 때문이었다. 20세기의 철학적 운동인 분석철학은 이런 배경에서 출현한다.

“분석철학은 과학의 특성인 검증성을 철학에 도입해 철학의 과학화를 추구합니다.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 명제를 배제하고 사실적·경험적 의미를 지닌 명제만을 분석해 그 의미의 명료화를 추구합니다. 따라서 분석철학에서 철학은 이론이나 체계가 아니라 하나의 활동이지요.”

철학적 명제를 분석해 의미를 밝히는 분석철학은 곧 언어철학이기도 하다. 언어와 세계, 언어와 인간의 관계를 탐구한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이 분석철학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이때문이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인 〈비트겐슈타인과 언어〉는 현대 철학의 한 정점을 보여준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쓰임’에 주목한 철학자였다.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언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사용된 문맥과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언어를 지배하는 규칙을 알아야 하며, 그 언어가 속한 삶의 형식을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해 언어와 인간의 관계를 동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를 예로 들어보지요. 우리가 나무로 만든 장기판과 장기알을 들여다본다고 해서 장기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의 규칙에 따라 상대방의 수에 대응해 장기알을 움직일 때 장기를 둘 수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어행위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나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상대주의 극복이 현대철학의 과제

철학사를 서술하는 것은 각 사상이 자리잡은 골짜기를 답사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즐기차게 이어지는 산맥을 짚어보는 일이기도 하다. 박총장은 거의 모든 서양 철학자들을 동적 세계관과 정적 세계관이라는 양대산맥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본다.

‘만물은 유전한다’고 정의한 헤라클레이토스의 동적 세계관

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재론과 영국의 경험론으로 계승된다. 변하지 않는 것만이 세계의 본질이라고 파악한 파르메니데스의 정적 세계관은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대륙의 합리론으로 맥을 이어간다.

이 두가지 철학의 흐름은 칸트의 비판적 인식론에서 종합되고, 헤겔의 절대적 관념론에서 변증법적으로 체계화된다. 헤겔 이후의 현대철학은 공리주의·현상학·실용주의·실존주의 등으로 가지를 뻗어나간다.

“헤겔 이전의 철학은 이성주의와 절대주의가 철학의 본류였습니다. 하지만 헤겔 이후 경험주의와 상대주의가 철학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포스트모더니즘도 상대주의 철학계열에 속하지요. 속단하긴 어렵지만 앞으로 철학은 경험주의와 상대주의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연세대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교육부장관을 역임한 이력에서도 알 수 있듯, 박총장은 철학자이자 교육행정가였다. 40여년 가까이 대학강단에 서온 박총장은 항상 후학들에게 철학인(哲人)이 되라고 강조한다. 몇몇 철학사조나 개념을 배우기 보다는 철학적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철학적으로 사는 사람은 논리적·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사물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사회적 부조리도 극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철학적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철학자들의 몫이지요.”

박총장은 현재 이 책의 완결편을 준비중이다. 이 책에서 빠진 니체와 마르크스, 그리고 해석학과 포스트모더니즘을 보완해 2년 안에 현대철학편을 완성할 계획이다. 서양 정치철학사를 집필하는 것도 그가 남겨둔 꿈이다. — 박천홍 기자